

#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허용도 및 폭력 인식 관련 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이현정<sup>1</sup>, 윤미선<sup>2</sup>, 김영은<sup>3</sup>, 이수영<sup>4\*</sup>

<sup>1</sup>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sup>2</sup>백석대학교 보건학부 간호학과, <sup>3</sup>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sup>4</sup>백석대학교 보건학부 물리치료학과

## An Exploratory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College Students' Tolerance and Recognition of Dating Violence

Hyun-Jung Lee<sup>1</sup>, Mi-Sun Yoon<sup>2</sup>, Young-Eun Kim<sup>3</sup>, Su-Young Lee<sup>4\*</sup>

<sup>1</sup>Division of Social Welfare, Baekseok University

<sup>2</sup>Department of Nursing, Division of Health Science, Baekseok University

<sup>3</sup>Division of Christian Studies, Baekseok University

<sup>4</sup>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Division of Health Science, Baekseok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폭력 인식 정도를 살펴보고 관련 요인들을 대상자의 일반적, 이성교제 및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을 중심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충남 에 소재한 B 대학교 남녀 대학생으로부터 수집된 설문지 365부를 SPSS WIN 22.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검정,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 허용도는 매우 낮았고, 폭력 인식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 이성교제 및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에 따른 데이트 폭력 허용도와 폭력 인식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데이트 폭력 허용도와 데이트 폭력 인식은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허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추후 연구의 방향성과 데이트 폭력 예방을 비롯한 실천적 개입에의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데이트 폭력 허용도, 데이트 폭력 인식, 데이트 폭력, 대학생, 성폭력 교육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level and related factors of dating violence tolerance and dating violence recognition. 365 self-reported survey was collected from students in B university in Chungcheongnam-do. The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using SPSS 22.0 program. It was found that the level of college students' dating violence tolerance was low and the level of dating violence recognition was high.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the factors related demographic, dating, sexual violence education related characteristics and dating violence tolerance and dating violence recognition. However, the levels of dating violence tolerance and dating violence recognition were significantly related. Based on these results, implications for dating violenc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and the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in this area were suggested.

**Key Words** : Dating violence tolerance, Dating violence recognition, Dating violence, College student, Sexual violence education

\*Corresponding Author : Su-Young Lee(rose118@bu.ac.kr)

Received May 18, 2018

Revised June 14, 2018

Accepted June 20, 2018

Published June 30, 2018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

발달 단계 상 성인초기에 속하는 대학생에 있어 건강한 데이트 경험은 이성과의 상호작용을 통한 친밀감 획득이라는 발달 과업의 성취뿐 아니라 전반적인 대인관계 기술 향상에 도움을 주며 미래 결혼 생활의 준비 과정으로써 의미를 갖는다[1,2]. 한편 데이트 경험은 강한 정서적 유대감과 상호작용의 특성상 상대방과의 견해 차이와 같은 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고 서로에 대한 기대가 좌절과 분노로 이어져 폭력적인 행동을 유발할 확률이 높은 양면성을 가지게 된다[1,3].

데이트 폭력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학자마다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데이트 폭력은 이성 관계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신체적 및 성적 폭력을 의미한다[1]. 최근 우리나라 남녀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대상자의 1/3이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1], 한국 여성의 전화 조사 결과 데이트 경험이 있는 여학생들 중 약 78%가 데이트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 데이트 폭력이 심각함을 나타내고 있다[2].

이러한 데이트 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및 심리적 측면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사회적 기능 수준의 저하를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데이트 폭력 경험이 있는 커플의 경우 결혼 이후에도 폭력이 지속되어 부부간의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5]. 이는 데이트 폭력이 연애 기간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폭력과 피해 자녀의 발생이라는 2.3차적 문제와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하겠다[6]. 이와 같은 맥락에서 데이트 폭력 예방은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자신의 정체감을 완성하고 심리·사회적으로 성숙한 성인기를 준비하는 시기인 대학생에 있어 이 주제의 중요도는 더 크다고 볼 수 있다[2].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학계에서 관련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데이트 폭력 행동의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 작업은 주요한 연구 방향이다. 영향 요인 관련 연구들에서 사회·인지적 이론에 근거하여 태도, 생각, 인지적 편견, 비합리적인 신념 등이 잠재적 요인으로 연구되고 있고 Boxer와 그의 동료들은 데이트 폭력 행동의 예방적 차원에서 이러한 사회·인지적 접근방법을 최고의 실천전략으로 주장하고 있다[7]. 이러한 맥락에서 인지적 요인인 데이트 폭력 허용도와 데이트 폭력 인식

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를 갖는다.

데이트 폭력 허용도는 이성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데이트 관계에서 데이트 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를 수용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많은 선행 연구에서 데이트 폭력 가해 또는 피해 행동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8-12]. 선행 연구 결과들은 데이트 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즉 폭력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가질수록, 데이트 폭력을 폭력이나 부정적인 사건으로 인식하지 않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인식하게 되며 이는 데이트 폭력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데이트 폭력 발생 시 대처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데이트 폭력 예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데이트 폭력 허용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2].

데이트 폭력 인식은 일반적으로는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된 행위가 폭력임을 분명히 인지하는 정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데이트 폭력 관련 연구에서는 데이트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상황)에 대한 개인의 생각, 태도, 신념 등으로 접근하기도 하며 이러한 데이트 폭력 인식은 선행 연구에서 데이트 폭력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되어 왔다[13,14]. 국내 데이트 폭력 인식 관련 연구에서는 폭력 상황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왜곡된 신념에 초점을 맞춘 데이트 폭력 편견[15], 폭력정당화 및 데이트 관계에 있는 연인 간 폭력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을 의미하는 데이트 관계신화[16], 데이트 폭력에 대해 개인이 인지하는 심각성과 허용도와 같은 데이트 폭력 인식 관련 변수들이 연구되었고 연구 결과들은 이러한 인식들이 데이트 폭력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1].

데이트 폭력 행동에 있어 위와 같은 데이트 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폭력 인식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어떠한 요인들이 데이트 폭력 허용도와 데이트 폭력 인식과 연관성을 갖는지를 탐색하는 연구는 사후 서비스가 아닌 예방 서비스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학문적 및 실질적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2]. 데이트 폭력 허용도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실태 분석에 초점을 두거나 데이트 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혀내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2,4,17-21]. 데이트 폭력 허용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다룬 기존 연구들에서는 개인적 요인(분노조절, 자아탄력성, 열등감, 성역할태도), 가정 관련 요인(가정폭력 경험, 가족역기능) 및 환경

적 요인(음란물 노출) 등이 주요 변인으로 규명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학문적 가치를 갖지만 보다 다양한 변수들과 데이트 폭력 허용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작업이 부족하여 데이트 폭력 허용도와 관련된 예방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다. 데이트 폭력 인식 관련 연구에서도 데이트 폭력 인식과 관련성을 갖는 요인들을 살펴본 경험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국내 연구로는 데이트 성폭력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가 있으나 남자 대학생과 성폭력 인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2], 하예지와 서미경의 연구에서는 성교 경험과 현재 교제 여부와 같은 이성교제 관련 특성에 따른 데이트 폭력 인식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았으나 포함된 변수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변수를 포함하여 이들과 데이트 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폭력 인식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뿐 아니라 데이트 폭력 허용도 및 폭력 인식 관련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았거나 보다 축적된 연구가 필요한 이성교제 특성(이성교제 및 성교 경험 여부, 결혼 전 성관계 허용)과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피임 교육 경험, 성폭력과 성희롱 교육 경험)을 포함하였다. 특히 성 관련 교육 경험은 대상자의 성행동 관련 인식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여 지지만 데이트 폭력 허용도와 폭력 인식과의 관계를 검증한 연구는 찾아 볼 수 없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수로 살펴보고자 한다. 보다 다양한 변수와 데이트 폭력 허용도 및 폭력 인식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의 건강한 데이트 관계를 위한 상담과 교육,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과 같은 실천적 개입에 보다 현실적이고 유용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폭력 인식과 관련이 있는 요인을 살펴보는 탐색적 연구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성교제 특성 및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대상자의 데이트 폭력 허용도와 데이트 폭력 인식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성교제 특성 및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에 따른 데이트 폭력 허용도와 데이트 폭력 인식을 파악한다.

넷째, 이성교제 특성 및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 데이트 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폭력 인식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2. 연구방법

### 2.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남 천안시에 소재한 B 대학교 내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4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연구에 동의한 자를 참여시켰다.

연구의 표본의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상관관계 분석 시 효과 크기 0.18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로 계산 시 369명이었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총 400부의 설문지를 B 대학교 내 연구자 4명이 운영하는 교과목의 수강 학생들에게 배포하였으며, 회수되지 못하거나 응답이 불충분한 35부를 제외하고 나머지 365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 2.2 연구도구

2.2.1 일반적, 이성교제 및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는 연령, 성별, 종교, 학년, 계열, 군복무, 거주형태, 가정형태, 음주를 조사하였다. 이성교제 특성으로는 이성교제 경험, 성 경험, 결혼 전 성관계 허용을, 성 관련 교육 경험으로는 피임 교육 경험, 성폭력과 성희롱 교육 경험을 포함시켰다.

#### 2.2.2 데이트 폭력 허용도

데이트 폭력이란 이성관계 중인 두 사람 중 한사람이 상대방에게 행하는 신체적 폭력과 상대방을 위협하는 모든 심리적, 언어적, 성적 폭력 행동을 포함한다[1]. 폭력 허용도란 폭력을 바라보는 태도로서, 특수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폭력을 얼마나 허용적으로 받아들이는지를 의미한다. 도구는 Foo와 Margolin(1995)의 폭력 정당화 척도를 박경민(2015)이 대학생에 맞게 수정한 17문항의 폭력 허용도 척도를 사용하였다[23]. ‘전혀 허용할 수 없다’ 1점에서 ‘매우 허용할 수 있다’ 7점으로 7점 likert 척도이다. 각 문항의 상황에서 폭력을 허용할 수 있는 정도를

표시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폭력을 허용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박경민(2015)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alpha$  =.932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929로 나타났다.

### 2.2.3 데이트 폭력 인식

데이트 관계에서 폭력 정당화와 연인 간의 폭력에 대한 비합리적인 잘못된 폭력 신념을 알아보기 위해 콕진회(2001)와 임채영 등(2010)이 개발한 도구를 이용하였다 [16,24]. Gunter(1985), Potter와 Warren(1998)의 연구를 기반으로 한 콕진회(2001)의 1문항과 임채영 등(2010)이 개발한 3문항으로 총 4문항을 사용하였다. '화가 났을 때 상대방을 때릴 수 있다.', '연인 간의 폭력은 사적인 일이므로 제 3자가 개입할 필요가 없다.', '연인 간에 성폭력이 일어난 경우 강간으로 보기 어렵다.', '연인 간의 폭력은 사소한 것이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의 4문항으로, 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 인식을 폭력 정당화, 데이트관계 신화를 포함하는 연인 간 폭력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으로 개념화하였다. '전혀 아니다'가 1점, '매우 그렇다'는 4점으로 4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비합리적인 데이트 폭력 인식(폭력정당화, 데이트관계 신화)이 높음을 의미한다. 콕진회(2001)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775, 임채영 등(2010) 연구에서는 .62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48이었다.

### 2.3 자료수집

본 연구의 자료는 대상자의 일반적, 이성 교제 및 성관련 교육 경험 특성, 데이트 폭력 허용도와 데이트 폭력 인식에 대해 자가보고서식 설문지법을 이용하였다. 2018년 3월부터 4월까지 연구자들은 B대학교 내 교수자로서 각자 수업을 진행하는 교과목의 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 연구 참여의 비밀보장을 충분히 설명한 후 대상자에게 설문지와 함께 서면동의서를 발부하였다. 설문지는 수업 이후 대상자 스스로 작성하게 한 후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회수하여 설문지 노출을 최소화으로 하였다. 설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5분이었다.

### 2.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  $\alpha$ 는 .05로 설정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이성교제 및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은 실

수와 백분율로 분석하였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성교제 및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에 따른 데이트 폭력 허용도와 데이트 폭력 인식 차이는 독립 t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이성교제 특성,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과 데이트 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폭력 인식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 3.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이성교제 특성 및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이성교제 특성 및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은 아래 Table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연령은 21~22세가 129명(35.3%), 성별은 여학생이 262명(71.8%), 종교가 있는 경우가 216명(59.2%), 학년은 4학년이 124명(34%), 학부 계열은 보건·공과계열이 215명(58.9%), 군복무 경험자가 65명(17.8%), 거주형태는 기숙사나 자취생활이 213명(58.4%), 가정형태는 양부모 가정이 319명(87.4%), 음주하는 경우가 233명(63.8%)로 많이 나타났다.

이성교제 특성은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가 306명(83.8%), 피임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319명(87.4%), 성폭력·성희롱 교육 경험은 있는 경우가 332명(91%)로 많이 나타났다.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은 성경험이 없는 경우가 231명(63.3%), 결혼 전 성관계에 대한 허용은 사랑한다면 가능하다가 258명(70.7%)로 많이 나타났다.

### 3.2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허용도와 비합리적 데이트 폭력 인식(폭력 정당화, 데이트 관계 신화) 정도

데이트 폭력 허용 정도와 비합리적 데이트 폭력 인식(폭력 정당화, 데이트 관계 신화)에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은 Table 2에서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p>.05$ ), 데이트 폭력 허용 정도는 남학생의 평균이 1.76( $\pm$ .69)점, 여학생의 평균이 1.78( $\pm$ .86)점으로 여학생이 높았다. 비합리적 데이트 폭력 인식 정도는 4점 만점에 남학생은 평균 1.37( $\pm$ .50)점 여학생은 평균 1.33( $\pm$ .51)점으로 남학생에게서 데이트 폭력 인식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heterosexual and sex-related education experience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365)

Characteristics	Variables	Categories	n(%)
General characteristics	Age (yr)	≤20	55(15.1)
		21~22	129(35.3)
		23~24	121(33.2)
		25~30	53(14.5)
		≥31	7(1.9)
	Sex	Male	103(28.2)
		Female	262(71.8)
	Religion	Yes	216(59.2)
		No	149(40.8)
Grade	1 grade	63(17.3)	
	2 grade	60(16.4)	
	3 grade	118(32.3)	
	4 grade	124(34)	
Division	Health/engineering	215(58.9)	
	Humanities/art & physical education	150(41.1)	
Army service	Yes	65(17.8)	
	No	41(11.2)	
Living	Home	152(41.6)	
	Dormitory/trace	213(58.4)	
Family type	Both parents	319(87.4)	
	One parent or divorce home	46(12.6)	
Drinking	Yes	233(63.8)	
	No	132(36.2)	
Heterosexual characteristics	Heterosexual experience	Yes	306(83.8)
		No	59(16.2)
	Sexual experience	Yes	134(36.7)
No		231(63.3)	
Premarital sex permissiveness	Yes	258(70.7)	
	No	107(29.3)	
Sex-related education experience characteristics	Contraceptive education experience	Yes	319(87.4)
		No	46(12.6)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buse education experience	Yes	332(91.0)	
	No	33(9.0)	

Table 2. College students' dating violence tolerance and recognition

(N=365)

	Male	Female	t	p
	Mean±SD	Mean±SD		
Dating violence tolerance	1.76±.69	1.78±.86	-.270	.787
Dating violence recognition	1.37±.50	1.33±.51	.605	.545

Table 3. Dating violence tolerance and dating violence recognition for general, heterosexual and sex-related education experience characteristics in subjects (N=365)

Characteristics	Variables		Dating violence tolerance	t	p	Dating violence recognition	t	p
			Mean±SD			Mean±SD		
General characteristics	Sex	Male	1.76±.69	-.270	.787	1.37±.50	.605	.545
		Female	1.78±.86			1.33±.51		
	Religion	Christian	1.76±.83	-.419	.676	1.36±.52	-.675	.500
		Catholicism	1.84±.98			1.44±.73		
	Division	Health/ engineering	1.75±.79	-.847	.398	1.34±.50	.106	.916
		Humanities/ art-physical education	1.82±.85			1.34±.52		
	Army service	Yes	1.81±.70	-.968	.336	1.36±.45	.346	.730
No		1.67±.67	1.39±.58					
Living	Home	1.77±.83	-.073	.942	1.34±.47	-.130	.896	
	Dormitory/ trace	1.78±.80			1.35±.53			
Family type	Both parents	1.77±.77	-.154	.877	1.33±.46	-1.490	.137	
	One parent/ divorce home	1.79±1.04			1.45±.76			
Drinking	Yes	1.80±.82	-.665	.506	1.38±.55	-1.721	.086	
	No	1.74±.80			1.28±.42			
Heterosexual characteristics	Heterosexual experience	Yes	1.76±.82	1.025	.306	1.36±.52	-1.946	.104
		No	1.88±.77			1.24±.40		
	Sexual experience	Yes	1.88±.82	-1.901	.058	1.37±.53	-.760	.448
No		1.71±.80	1.33±.50					
Premarital sex permissiveness	Yes	1.80±.82	.880	.380	1.35±.51	.320	.749	
	No	1.72±.79			1.33±.49			
Sex-related education experience characteristics	Contraceptive education experience	Yes	1.76±.79	1.088	.277	1.35±.52	-.384	.701
		No	1.90±.94			1.32±.42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buse education experience	Yes	Yes	1.78±.82	-.106	.916	1.34±.49	.799	.425
		No	1.76±.82			1.40±.65		

3.3 일반적 특성, 이성교제 특성 및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에 따른 데이트 폭력 허용도와 폭력 인식 정도(폭력 정당화, 데이트 관계신화)

데이트 폭력 허용 정도는 일반적 특성, 이성교제 특성,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에 따라 Table 3과 같다. 데이트 폭력 허용 정도가 높은 문항은 피임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1.90(±.94)점,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경우 1.88(±.77)점,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 1.84(±.9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낮은 문항은 군복무 경험이 없는 경우 1.67(±.58)점, 결혼 전 성관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1.72(±.79)점, 음주

를 하지 않는 경우 1.74(±.80)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데이트 폭력 인식(폭력 정당화, 데이트관계 신화) 정도는 일반적 특성, 이성교제 특성,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에 따라 아래 Table 3과 같다. 데이트 폭력 인식 정도가 높은 문항은 종교가 천주교인 경우 1.44(±.73)점, 성폭력과 성희롱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1.40(±.65)점, 군복무 경험이 없는 경우 1.39(±.58)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낮은 문항은 이성교제 경험이 없는 경우 1.24(±.40)점,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 1.28(±.42)점, 피임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 1.32(±.42)점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Table 4. Relationship among heterosexual and sex-related education experience characteristics, dating violence tolerance and dating violence recognition

Variables	Heterosexual experience	Sexual experience	Premarital sex permissiveness	Contraceptive education experience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buse education experience	Dating violence tolerance	Dating violence recognition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							
Heterosexual experience	1						
Sexual experience	.334**	1					
Premarital sex permissiveness	-.110*	-.378**	1				
Contraceptive education experience	.058	.084	-.046	1			
Sexual harassment and sexual abuse education experience	-.009	.042	-.007	.255**	1		
Dating violence tolerance	-.055	.101	-.047	-.058	.006	1	
Dating violence recognition	.086	.040	-.017	.020	-.042	.269**	1

\*p<.05, \*\*p<.01

일반적 특성, 이성교제 특성,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에 따른 데이트 폭력 허용 정도와 데이트 폭력 인식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p>.05).

### 3.4 이성교제 특성 및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 데이트 폭력 허용도와 데이트 폭력 인식(폭력정당화, 데이트관계 신화)의 상관관계

이성교제 특성,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 데이트 폭력 허용도, 데이트 폭력 인식의 상관관계는 Table 4와 같다. 이성교제 경험과 성교 경험(r=.334, p<.01), 피임 교육 경험과 성폭력 교육 경험(r=.255, p<.01), 데이트 폭력 허용도와 데이트 폭력 인식 정도(r=.269, p<.01)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성교제 경험과 결혼 전 성관계 허용((r=-.110, p<.05), 성교 경험과 결혼 전 성관계 허용(r=-.378,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 4. 논의

본 연구에서는 남녀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폭력 인식 정도를 살펴보고 이와 관련이 있는 다양한 요인을 탐색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성교제 관련한 대학생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성교제 경험은 약 84%로, 대부분의 대학생이 이성교제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혼전 성교에 대해서도 약 71%의 대학생이 사랑한다면 가능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반해, 실제 성교 경험이 있는 대학생은 37%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춘아와 주용국의 연구에서 나타난 성교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비율(약 52%)보다 낮은 수치이다[25]. 이러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혼전 성교에 대한 인식과 실제 성교 경험의 격차는 대학생의 혼전 성교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개방적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행동 면에서는 보수적인 성향을 띄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한편으로, 본 연구의 대상자가 기독교대학의 대학생임을 감안할 때 성교 경험에 대한 문항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타인을 의식하여 성교 경험 여부를 밝히는 것을 주저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성 관련 교육 부분에서는 대부분의 대학생이 피임 교육(87.4%)이나 성폭력/성희롱 교육(91%)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데이트 폭력을 허용하는 정도에 있어서 남녀의 데이트 폭력 허용도 평균은 각각  $1.76(\pm 0.69)$ 점과  $1.78(\pm 0.86)$ 점으로 남녀 간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남자가 여자에 비해 폭력을 허용하는 정도가 더 높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대비된다[1]. 하지만 남녀 모두 허용도 평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보아 전반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해 상당히 비허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20~30대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한 하예지, 서미경의 연구나 간호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계현과 강미경의 연구에서 보고된 데이트 폭력 허용도보다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이다[1,26]. 본 연구에서 드러난 대학생의 낮은 데이트 폭력 허용도는 근래에 들어 데이트 폭력·성폭력 이슈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면서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민감성, 또한 관련 예방교육이 증가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한편, 데이트 폭력 인식(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당성이나 비합리적 신화 수용 정도)에 대한 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남녀 평균이 각각  $1.37(\pm 0.50)$ 점,  $1.33(\pm 0.51)$ 점으로 낮아 대학생이 전반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정당성이나 비합리적 신화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꾸어 말해,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관련 인식 및 심각성 인식 수준은 대체로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데이트 폭력 인식에 있어서 남녀 간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데이트 폭력에 대한 비합리적인 신념을 다소 더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데이트 폭력 인식수준이 낮다는 기존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1], 데이트 폭력에 대한 비합리적 인식이나 신념이 상당 수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데이트 폭력 관련 신화-데이트 폭력이 사소한 것이고 사적인 영역에 속하기에 제 3자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등의-는 개인적 수준의 개입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사회적인 수준에서 인식개선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 폭력 허용도를 살펴본 결과,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데이트 폭력 허용도의 평균에 있어서, 성교 경험이 없는 경우, 혼전 성교에 대해 부정적인 경우, 음주를 하지 않는 경우도 데이트 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낮은 경향을 띠었다. 이러한 성교경험과 데이트 폭력 허용도와와의 관

계는 하예지와 서미경의 연구 결과와 비슷하다[1].

일반적 특성, 이성교제 특성 및 성 관련 교육 경험 특성에 따른 데이트 폭력 인식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음주를 하는 그룹이 음주를 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왜곡된 사고를 다소 더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경현의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이상 음주하는 대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27]. 그러나 음주와 데이트 폭력과의 관계는 단순한 음주 여부가 아니라 음주의 문제성, 상황적, 사회적인 측면 등을 고려하여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음주와 데이트 폭력 인식과의 관계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탐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28].

데이트 폭력 인식의 평균을 특성별로 살펴본 경우, 가정 형태가 한 부모 가정일 경우, 성폭력 관련 교육 경험이 없는 경우에 데이트 폭력에 대해 비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미미하게나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 인식에 대한 성폭력 관련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대상의 연령, 교육방법 등의 요인에 따라 엇갈린 결과를 보여준다[29,30].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데이트 폭력 인식을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데이트 폭력·성폭력 관련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특히, 교육의 내용 면에서 데이트 폭력에 대한 비합리적·왜곡된 신념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 보다 구체적인 교육이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성교제 경험이 없고, 혼전 성교에 대해 부정적이고, 성교 경험이 없는 대학생이 상대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해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사고를 다소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김보미의 연구에서는 성교 경험이 없는 대학생 집단이 데이트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31]. 이러한 결과는 역으로, 이성관계에서 성교 경험이 있는 경우 데이트 폭력을 더 허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더 나아가 그것은 데이트 폭력의 피해 및 가해 경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1,26]. 따라서 향후 성교 경험이 데이트 폭력 인식 및 허용도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할 수 있는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이성교제 특성, 성관련 교육 경험 특성과 데이트 폭력 허용도 및 데이트 폭력 인식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이성교제 경험과 성교 경험이 비례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데이트 폭력 인식과 허용도에 있어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이 낮을수록(데이트 폭력에 대한 비합리적 사고를 할수록) 데이트 폭력을 더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연구로, 김보미는 성폭력 인식이 높을수록 데이트 폭력 허용도가 낮다고 보고하였다[31].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서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폭력을 허용하는 경향을 보고한 경우도 있어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과 허용도의 관계가 단순하지 않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1]. 따라서 추후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과 현실적 상황의 데이트 폭력 허용도의 관계에 작용하는 다양한 매개나 조절변수를 함께 살펴보는 연구 설계를 제안하는 바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이 전반적으로 데이트 폭력에 대한 왜곡되고 비합리적 신념을 수용하는 정도가 낮고 데이트 폭력과 관련하여 매우 비허용적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과 관련한 민감성은 근래에 들어 더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 나타난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이나 이성교제 관련, 성폭력 교육 관련 경험과 데이트 폭력 인식 및 허용도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에 논의에서 제시한 해석은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본다. 특히, 비합리적 데이트 폭력 인식과 데이트 폭력 허용도 간의 유의미한 관계성을 밝힌 것은 본 연구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 개 대학, 특히 기독교 대학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기에 연구 결과를 모든 대학생에게, 또한 종교가 없는 대학생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추후 보다 확대된 지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일반대학과 종교적 색채를 지닌 대학의 대학생의 데이트 폭력 관련한 비교연구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1] Y. J. Ha & M. K. Seo. (2014). A Study of Perception and Experiences of Dating Violence.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30(4), 79-103.
- [2] J. Yoon, S. Y. Yang & B. K. Park. (2012). The Influence of Domestic Violence, Patriarchal Gender Attitude, and Inferiority Complex on Acceptability of College Dating Viol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6), 79-107.
- [3] H. A. Sears, E. S. Byers, J. J. Whelan & M. Saint-Pierre. (2006). If it hurts you, the nit is not a joke: Adolescents' ideas about girls' and boys' use and experience of abusive behavior in dating relationship.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 1191-1207. DOI : 10.1177/0886260506290423
- [4] H. Y. Koo. (2017).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Dating Violence Acceptability in College Students. *Studies of Future Social Work*, 8(1), 37-68. DOI : 10.22156/CS4SMB.2017.7.1.001
- [5] Y. M. Kim & K. O. Kim. (2000). A Study on Physiological Violence in Dating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Journal of Korea Home Economics and Education*, 12(3), 183-194.
- [6] S. R. Shin. (2017). How Does College Student's Experience of Neglect and Sexual Abuse in Family Affect Offence of Dating Violence?: Focused on Mediate of Violence Approval. *Korean Journal of Public Peace and Administration*, 26(1), 11-35. DOI : 10.21181/kjpc.2017.26.1.9
- [7] P. Boxer, S. E. Goldstein, D. Musher-Eizenman, E. F. Dubow & D. Heretick. (2005). Developmental Issues in School-Based Aggression Prevention from a Social-cognitive Perspective.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6, 383-400.
- [8] K. H. Suh, B. J. Kim & S. S. Kim. (2001).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Womens and Health*, 2(1), 75-97.
- [9] H. S. Chang & H. K. Cho. (2001). The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8, 179-204.
- [10] H. S. Shin & H. W. Yang. (2005). The Predictors of Physical Violence by Early Adolescents toward Opposite-Sex Friend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2(1), 300-324.
- [11] N. E. Marcus, K. M. Lindahl & N. M. Malik. (2001). Interparental Conflict, Children's Social Cognitions, and Child Aggression: A Test of a Mediation Model.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5(2), 315-333. DOI : 10.1037//0893-3200.15.2.315
- [12] A. K. Shelby & B. J. Lohman. (2007). Dating Violence

[1] Y. J. Ha & M. K. Seo. (2014). A Study of Perception and Experiences of Dating Violence. *Social Science Research*

- Victimiza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Mental Health Problems, and Acceptability of Violence: A Comparison of Men and Women. *Journal of Family Violence*, 22, 367-381.
- [13] J. Y. Lee & E. S. Lee. (2005). The Explanatory Models of Dating Violence and Victimization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17(2), 419-436.
- [14] N. E. Werner & C. I. Nixon. (2005). Normative Beliefs and Relational Aggression: An Investigation of the Cognitive Bases of Adolescents Aggressive Behavior.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ts*, 34, 229-243.  
DOI : 10.1007/s10964-005-4306-3
- [15] S. Y. Chung, C. Y. Lim & M. S. Lee. (2011). The Effects of Prejudice on Dating Violence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Violence Acceptability and Relationship Conflict. *Social Science Research Review*, 27(4), 127-151.
- [16] C. Y. Lim, S. Y. Chung & M. S. Lee. (2010). The Effects of Violence Perception on Dating Viol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Relationship Satisfaction. *Journal of Community Welfare*, 35(12), 147-179.
- [17] S. Y. Kim. (2010). *The Influence of Family Violence Experience on Students*. Master dissertation, Honam University, Cheonan.
- [18] W. K. Nam. (2008). *A Study on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while Dating among Unmarried Men in Busan*. Master dissertations. Shilla University, Jeju.
- [19] D. R. Jezl, C. E. Molitor & T. L. Wright. (1996). Physical, Sexual, and Psychological Abuse in High School Dating Relationship: Prevalence rates and self-esteem issues. *Child and Adolescent Social Work Journal*, 13(1), 69-87.  
DOI : 10.1007/bf01876596
- [20] M. L. Dye & C. I. Eckhardt. (2000). Anger, Irrational Beliefs and Dysfunctional Attitudes in Violent Dating Relationships. *Violence and Victims*, 15(3), 337-350.
- [21] G. J. Overbeek, W. A. M. Vollebergh, R. C. Engels & W. H. J. Meeus. (2003). Young Adults' Relationship Transitions and the Incidence of Mental Disorders: A three-wave longitudinal stud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8, 669-676.
- [22] B. M. Kim. (2017).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Male University Students'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6), 525-533.
- [23] K. M. Park. (2015). *Difference of Degree of Dating Violence Acceptance between the Students' Genders: Focused on Offender's and Victim's Change of Position*. Master dissertations. Kyonggi University, Seoul.
- [24] J. H. Kwak. (2001). A Study of Viewer's Violence Perception and the Context Dimensions on TV Violence. *Korea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 Studies*, 15(2), 7-41.
- [25] C. A. Jung & Y. K. Joo. (2017).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Sexual Assault Recognition,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and Sexual Assertiveness in Dating Relationship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Therapist*, 9(2), 405-418.
- [26] G. H. Jung & M. K. Kang. (2018). The Convergent Relationship Between Dating Violence Experience, Violence Tolerance, and Social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2), 33-42.
- [27] K. H. Suh. (2003). Motivation for Alcohol Use, Problem Drinking, Family Alcohol Use and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Psychological and Social Issues*, 9(2), 61-78.
- [28] N. M. Yang. (2009). The Mediating Role of Trait-Anger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blem Drinking and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0(4), 2539-2554.  
DOI : 10.15703/kjc.10.4.200912.2539
- [29] J. H. Yoon. (2010). A Study on Children's Experiences and Recognitions of Preventive Education against Sexual Abuse. *The Journal of Practical Education*, 23(3), 59-78.
- [30] E. J. Park. (2017). A Research on the Effective Influence of Theatrical Dramas for Raising Awareness of Women Violence on Sexual Violence Cognizance of Adolescence. *The Korea Dance Education Society Journal*, 28(3), 239-255.
- [31] B. M. Kim. (2017).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Male University Students'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6), 525-533.

이 현 정(Lee, Hyun Jung) [정회원]



- 1999년 12월 : 美일리노이 주립대 사회사업학(사회사업학석사)
- 2007년 12월 : 美일리노이 주립대 사회사업학(사회사업학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여성복지
- E-Mail : hjlee2003@bu.ac.kr

윤 미 선(Yoon, Mi Sun) [정회원]



- 2002년 2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석사
- 2005년 2월 :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 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모성 여성건강간호, 심질환 여성간호, 난임 여성 간호, Nursing Simulation, Flipped Learning.
- E-Mail : ymsrose@bu.ac.kr

김 영 은(Kim, Young Eun) [정회원]



- 1999년 12월 : 美트리니티대학교 (Trinity University) 상담심리석사
- 2006년 8월 : 美휘튼대학교 (Wheaton College) 임상심리박사
- 2009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 관심분야 : 정신분석적 심리치료, 대상관계 심리치료, 청소년상담
- E-Mail : youngeunk@bu.ac.kr

이 수 영(Lee, Su Young) [정회원]



- 2009년 3월 ~ 현재 : 백석대학교 보건학부 물리치료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근골격계, 신경계 물리치료 진단평가
- E-Mail : rosei18@bu.ac.kr